



제주시 한경면 수월봉 영알길을 찾는 관광객들이 트레킹을 즐기고 있다. 이상국기자

세계지질공원 제주를 엿보다

제12회 수월봉 지질트레일 26~28일 사흘 간

석기탄신일 황금연휴에 맞춰 제주 화산지형의 진수를 살펴볼 수 있는 '제12회 수월봉 지질트레일' 행사가 개최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도 세계지질공원트레일 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제주도 한경면 수월봉과 차귀도 일대에서 탐방객들을 맞이한다.

제주에는 한라산과 만장굴, 성산 일출봉, 주상절리대 등 총 13곳의 지질공원 대표명소가 자리 잡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수월봉은 약 1만 8000년 전 수성화산 분출로 형성된 응회환의 일부로 세계적인 화산학 연구의 1번지로 잘 알려져 있다.

행사 기간 탐방 프로그램은 수월봉 영알길을 걷는 A코스와 차귀도를 돌아보는 B코스 등 2가지 코스로 마련됐다.

먼저 A코스는 해경파출소를 출발해 녹고의 눈물, 갯도진지, 화산재 지층과 화산탄을 지나 수월봉 정상에 오른 뒤 영알과 화산재 지층, 검은모래해변, 해녀의집을 돌아오는 코스로 곳곳에 있는 다양한 크기의 화산탄과 지층을 탐방할 수 있어 화산활동의 현장을 눈에 담을 수 있다.

유람선을 이용해 차귀도로 들어가는 B코스는 차귀도 유래를 시작으로 장군바위와 차귀도 등대 일대

의 지질을 살펴보고 차귀도의 식물 군락과 매, 물수리, 흑로와 같은 조류를 관찰할 수 있다.

해설사와 함께 하는 탐방은 행사 기간 동안 오전 10시와 10시30분, 오후 1시와 2시 총 4회 진행되며 하거나 한라일보 홈페이지의 배너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질트레일은 26일 오전 10시20분 고산리 민속보존회와 해녀공연단의 개막식 전 행사를 시작으로 3일 간 풍성한 볼거리도 제공한다. 27일 오전에는 트로트 가수 김서희의 공연과 서란영 팬플룻·오카리나 공연 등이 진행되며 행사 마지막인 28일에는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과 날마다 소풍의 공연도 준비돼 있다.

또 행사장 일대에서는 고산1·2리와 웅수리 수녀회의 먹거리 장터와 특산물 판매장, 생물권 보전지역 홍보 부스 등이 운영되며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선사 유적 체험과 팔찌·열쇠고리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탐방시간은 자연보호와 탐방객 안전을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제한하며, 1일 강수량이 25mm를 초과하거나 강한 바람 등 기상악화 때는 탐방이 통제될 수 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진굴나무 일곱 그루, 정원의 시작이죠”

당신의 삶이
이야기입니다

(10) 정원 가꾸는 김학우씨

불현듯 찾아온 만남처럼 나무와 인연을 맺었다. 꽃 하나, 풀 한 포기 도 손수 뿌리내리게 했다. 텅 비었던 2000여 평의 땅이 이제는 수많은 생명을 품는다. 올해로 20여 년째 정원을 가꾸고 있는 김학우(67) 씨의 이야기다.

▶우연처럼 만난 제주, 진굴나무 = 그가 제주에 온 것부터가 어찌 보면 우연이었다. 고향인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다 1991년 제주로 발령받아 내려왔다. 도심의 복잡함이 싫었던 그에게 제주는 “천국”이었다. 그는 “서울에선 다음날 출근을 위해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 몇 번 출근로 지하철을 타야 될 막힐 때까지 계산하며 움직였다”며 “제주에선 ‘숫자 싸움’을 하지 않아도 돼 좋았다”고 했다.

제주 살이 8년차에 대뜸 “일을 벌렸다”. 농사일은 전혀 몰랐지만 감귤밭을 사들였다. 이유는 간단했다. 제주에 계속 살고 싶다는 거였다. 하지만 난생 처음 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딱 2년 농사를 짓고, 감귤 값이 바닥을 치던 해에 폐원했다.

감귤나무를 모두 뽑아내던 그때에도 ‘일곱 그루’만은 지켰다. 그의 정원을 있게 한, 약 300년 된 ‘진굴나무’다. 2001년 일곱 그루만 덩그러니 남은 2000여 평 밭에 나무를 하루씩 더 심기 시작했다. 땅을 다지고 큰 나무를 옮기는 것만 장비의 힘을 빌렸지, 나머지는 학우 씨와 아내 허진숙 씨가 직접했다. 그렇게 10여 년쯤 흘렀을 때 정



최근 전국 첫 ‘로즈마스터가드너’로 인증 받은 김학우 씨는 올해로 20여 년째 정원을 가꾸고 있다. 신비비안나기자

300년 된 고목과 만남 후 2000평 빈 밭을 정원으로 전국 첫 ‘로즈마스터가드너’... 심고 가꾸고 나누어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돕는 것도 마스터가드너의 일”

원의 모습이 갖춰졌다. “제가 아무리 예쁘게 심어 놔도 저절로 씨가 날아가 자라는 위치가 최고의 적지입니다. 그게 제일 자연스럽고 잘 어울리지요. 잡초가 무성해지면 귀하게 심은 식물이 죽을까 봐기도 하는데, 문득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제가 뭐라고 어떤 건 살리고 어떤 건 죽이느냐 하는 거죠. 사람도 똑똑한 사람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처럼 모자란 사람도 있고 해야죠.(웃음)”

▶심고 가꾸고 나누는 ‘마스터가드너’ = 그의 정원은 알음알음 알려졌다. ‘마스터가드너’에 들어선 것도 소문을 듣고 그의 정원을 찾았

던 제주농업기술센터 관계자의 권유에서였다. 2010년 국내 처음으로 제주에 ‘마스터가드너’라는 이름이 도입된 이듬해부터 전문교육, 인턴십 과정을 차례로 거쳤다. 올해로 정식 활동한지 10년째, 그는 전국 첫 ‘로즈마스터가드너’가 됐다. 로즈마스터가드너는 마스터가드너 인증을 받은 뒤 10년간 매년 어떤 건 죽이느냐 하는 거죠. 사람도 똑똑한 사람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처럼 모자란 사람도 있고 해야죠.(웃음)”

“심고 가꾸고 나누다.” 그는 마스터가드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들이 퍼트리려는 원에는 꽃과 나무를 심는 데 그치지 않는다. 베란다에 한 평 정원을 만들어 과일과 채소를 키우고 그걸 따 먹는 즐거움까지 얘기하는 게 마스터가드너다.

그의 말처럼 “생활을 가드닝”하는 셈이다.

현재 제주에는 마스터가드너 3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 마스터가드너를 배출한 지역치고는 적은 수다. 전국에서 관련 교육이 제일 먼저 시작됐지만, 아직 5기 밖에 배출되지 않았다. 제주를 뒤따랐던 다른 지역에서 12-13기가 나온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어떻게 하면 즐겁게, 생산적인 여가 활동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도 마스터가드너의 일입니다. 이런 활동이 활성화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도 있겠지요. 제주를 마스터가드너의 발상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스터가드너가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활동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 더 많은 이야기와 영상은 한라일보 홈페이지(www.ihalla.com)에서 만나 보세요.

나도 제주도

제주고향사랑 기부 캠페인

너도 그런적 있지? 훌쩍 떠난 제주에서 너무 많은 걸 받고 돌아온 기분이 들때 마음이 쉬어가는 섬, 제주! 제주야, 이제 내 고향하자!!

Loving Jeju Giving Back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